chosun.com

전병근 기자 bkjeo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8.01.09 00:5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09/2008010900055.html

"사르코지의 동시다발적 개혁, 저항 많아 "

"니콜라 사르코지(Sarkozy) 프랑스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는 에너지 넘치는 친(親)기업 개혁 지도자란 점에서 닮았다. 다만 사르코지는 개혁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지만, 이 당선자는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해나갔으면 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외교 관련 싱크탱크인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티에리 드 몽브리알(Montbrial·**사진**) 소장은 8일 국제교류재단 초청 내한 강연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사르코지 개혁은 8개월을 넘겼지만 성과는 아직 많지 않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 사르코지가 당선됐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 내부의 개혁 저항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연에 이어, 본지와 가진 인터뷰 요지.

― 사르코지 개혁은 왜 그리 요란한가.

"프랑스는 혁명을 거쳤지만 아직도 군주제와 흡사하다. 대통령 의존도가 높다.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도 막강하고 사생활에서도 왕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반면에, 프랑스인은 혁명적이면서 동시에 개혁에 저항적이다. 루이 16세가 실제로 목이 잘릴 만큼 국민은 혁명적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자신이 얻은 이익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여론조사에서 54%가 '시장경제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나라가 프랑스다."

― 사르코지 리더십의 특징은?

"고정관념을 깨는 대통령이다. '국가 개입주의'라는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안 받는다.

대통령이라 할 만하다. 대단한 웅변가지만, 용어는 서민적이다. 가끔 문법이 틀리는데도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의 대표적 슬로건이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벌자'인데 이전까지 정치인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미국에도 콤플렉스(열등의식)가 없다. 그는 정치력이 뛰어나고 야당인 사회당도 내분 상태라서, 4년 반 후 재선에도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 그의 개혁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지난 8개월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고 예고가 됐다. 매일같이 법안이 통과되고 정책이 시행돼, 무엇이 사르코지 개혁인지 헷갈릴 정도다. 모든 것을 가속화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는 3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올 하반기부터 프랑스가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기 때문이기도 하다."

— 개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프랑스 혁명 이래 정부와 시민 사이에 중개역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민간재단이나 민간기구가 활성화하지 못했다. 타협보다 파업에 의존하는 문화도 걸림돌이다. 외국에서 보는 것과 달리, 프랑스는 노조가 약하다.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이 10%도 안 되고 재정도 취약하다. 그래서 주장이 과격하고 매번 협상보다 파업이나 극한투쟁이 앞선다."

— 사르코지와 이명박, 두 사람은 어떤 점이 닮았나?

"둘 다 친기업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나폴레옹 이후 사르코지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대통령이 없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며 바꾸려고 노력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체력이 계속 유지될까 걱정스러울 정도다. 한국도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프랑스도 그렇다. 더 일해야 할 상황이다. 개혁의 필요성이 대중에게 전달됐고 받아들여졌다."

— 사르코지 개혁 8개월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새 정부에 조언한다면.

"한국은 현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사르코지는 동시에 모든 걸 개혁하겠다고 추진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일정과 계획을 짜서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시다발적인 개혁은 너무 야심적이다. 우선 순위를 매겨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